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8호 [루체 제25547호] 주제 106 (2017)년 2월 7일 (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강동정밀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강동정밀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동지, 유진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김수길동지와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015년 1월



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공장이 수행하여야 할 생산목표를 정해주시었으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공장의 안팎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더 잘 꾸릴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 말씀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은 자강력제일주의 기치 높이 만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면서 총연대를 넘쳐 수행하면서도 여려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과학기술보급실과 살림집들도 새로 건설하였으며 후방 및 편의봉사시설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제품전시장과 가공직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생산 및 현대화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제품전시장을 멋쟁이 전축물로 건설하였으며 보기에도 좋고 다루기 편리하며 성능이 대단히 높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진열해놓았는데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고, 공장의 정밀기계 가공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로보트가 척척 날라다 설치해준 소재들을 가공하는 현대적인 수자조종공작기계들의 작업모습이 불만 하다고 하면서 운반으로부터 가공,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의 최첨단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화, 생활화하여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고

시야를 넓혀줌으로써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기술형의 인간, 지식형의 인간으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콩기공장, 봉화온정원, 살림집도 돌아보시였다.

3층으로 된 현대적인 과학기술보급실의 연면적은 2,570여 m²이고 원격복화실, 열람실, 종합조종실, 기술도서보관실, 망봉사실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과학기술보급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 꾸리라고 지시하였는데 당의 의도에 맞게 건설을 잘하였다고 하면서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만점이라고, 흠잡을데가 없다고 하시였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잘 하는 것은 당의 전민 과학기술인재화 방침을 철저히貫彻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종업원들속에서

사업을 정상화, 생활화하여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고

시야를 넓혀줌으로써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기술형의 인간, 지식형의 인간으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을

나누고 정갈한감을 줄수 있게 정말

잘 꾸렸다고, 천정에 채광창을 설치하

였는데 착상을 잘하였다고 하면서

공장종업원들과 가족들이 도시부럽지

않은 문화생활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을

나누고 정갈한감을 줄수 있게 정말

잘 꾸렸다고, 천정에 채광창을 설치하

였는데 착상을 잘하였다고 하면서

공장종업원들과 가족들이 도시부럽지

않은 문화생활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을

나누고 정갈한감을 줄수 있게 정말

잘 꾸렸다고, 천정에 채광창을 설치하

였는데 착상을 잘하였다고 하면서

공장종업원들과 가족들이 도시부럽지

않은 문화생활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을

나누고 정갈한감을 줄수 있게 정말

잘 꾸렸다고, 천정에 채광창을 설치하

였는데 착상을 잘하였다고 말을

나누고 정갈한감을 줄수 있게 정말

잘 꾸렸다고, 천정에 채광창을 설치하

였는데 착상을 잘하였다고 하면서

공장종업원들과 가족들이 도시부럽지

않은 문화생활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을

나누고 정갈한감을 줄수 있게 정말

잘 꾸렸다고, 천정에 채광창을 설치하

였는데 착상을 잘하였다고 하면서

공장종업원들과 가족들이 도시부럽지

않은 문화생활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을

질좋고 멋있는 가구비품들도 구색이 맞게 갖추어놓았는데 종업원들이 좋아하겠다고 하면서 광명성질을 맞으며 새 집들이를 하라고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높이 올리고 있는 생산증산의 동음소리를 들으니 당의 의도대로 더 많은 정밀기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잠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은 공장로동계급의 투쟁열의를 잘 알수 있다고 하면서 정밀기계가 공품의 품종과 수량이 부단히 변하는데 맞게 생산조

직과 새 제품개발사업을 힘리적으로 할수 있도록 모든 생산공정들에 유연생산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협대적인 겸축설비들을 이용하여 제품검사를 엄격히 할으로써 제품의 질과 신뢰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강동정밀기계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지난기간 당의 결정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무조건 집행한 전세대로 통계급처럼 오늘의 벅찬 투쟁에서도 당정책결사관철의 기수, 뚜렷이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강동정밀기계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끊임없는 현지지도강행 굳건을 이어가시는 속에서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어 뜨거운 사랑과 하늘 같은 은덕을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리에게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당이 준 전투임무를 결사관철할 총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점지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강동정밀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四〇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의 민족적 혁명 운동

71

김정은동지

수리아아랍공화국
바샤르알
2017년 2월 5일

118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경북도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신 10돐 기념보교회 진행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의 헌지지도 10돐 기념보교회가 함경북도혁명사적관, 청진시 나남구역혁명사적지관리소, 청진기초식품공장, 어랑원발전소 등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그들은 최지기총서장을 찾은 하시면서 전설지들의 관리운영과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최지기총서장을 찾은

항상시키는데서 혁명적전환의 계기로 되었다고 하면서 지난 10년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생산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인민들이 좋아하는 기초식품과 인민소비품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10돐기념

보고자들은 위 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96(2007)년 2월 학생부도의 어려 단위들에 거룩한 병도의 자축을 새기신데 대
한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고 말하였다.
세로 진실한 이왕원1호발전소를
하고 실천해오시면 사업들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완성하여 장군님의 리상과 널원이 이 땅에 현실로 펼쳐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들이 발전기기에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함으로써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이바지 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라난군역에 찾으시에서는 전설정형과 전력생산 보고자들은 도안의 혁명사적부분
실태를 국체적으로 살펴하시고 발전에서 혁명적성지 혁명사적지를 대
보고자들은 위대한 평도자
직적임동지의 유헌과 결에 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급수역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상과 합동혁명사적지, 구호문원보 존교양실을 돌아보시면서 혁명사적지들은 혁명의 귀중한 재보이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뿐만 아니라 푸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확넓고 깊이 있게 전개해 나갈게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간 뱃이 기사으로 사회주인으로 승격해나간 이지

지난 20년간 수십만명의 인민군 장병들, 각 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대역산혁명사적지를 찾관

선군혁명의 승리를 위해 영원불멸 할 업적을 쌓아온 최신 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를 길이 빛내어나갈 천만군민의 축복의 영광과 영광 가면에 걸친 소설이다.

그들은 활판을 통하여 위대한 수명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창조하시고 빛내여오신 일당백의 역사와 전통이 우리에게 영광과 힘을 전해주는

지난 20년간 수십만명의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이곳을 침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탁적으로 명도하신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이 소중히 보존전시되어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초소에 오른 참관자들은 현지지도사직비에 대한 해설을 듣고 천연바위에 새긴

명실과 직당을 비롯한 조조의 어려움을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천여번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그 불과 사랑의 기념사진도 책에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진 사진봉원을 친하게 일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대를 이어 즐기기자기 이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였다.

전체 참관자들은 주체적혁명 무력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선군혁명의 혐난한 조행길을 헤치시며 민족자주의 새 기원을 염어놓으시고 나라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끈끈한 로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불멸의 업적은 『일당백』글밥을 바라보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그 어떤 원쑤들의 침략에 둘도 짓부서버릴수 있는 불폐의 혁명강군, 영웅적인민으로 키워주신 철세위인들의 엄격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었다.

갑시오와 교양실 등에서 그들은 럭 앞에서 참관자들은 오래도록 밥걸을 울 떼지 못하였다.

언제나 선군혁명명도의 길에 함께 계시며 우리 인민군대를 천하무적의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키워 주신 철세위인들께서 한생을 바쳐 억척으로 다져주신 선군의 총태가 얼마나 김 일성 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응호하고 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일당백의 기상으로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철석의 의지로 가슴 불태웠다.

조국형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사의 그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귀중한 혁명유산인 가사를 절감하게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우주강국의 존엄과 위용 누리에 빛난다

지구판축위성 『광명성-4호』호발사 성공 1돐을 맞으며

지구판축위성 『광명성-4호』호가 지구를 박차고 만대공으로 날아오른 때로부터 한바탕 했었다.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위성,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성, 위대한 조선인민의 위성 『광명성-4호』호발사의 대성공으로 하여 우리 조국은 당당한 우주강국으로서의 지위에 더 높이 올라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역사적인 달 제7차대회를 앞두고 주체조선의 창한 영웅들인 우리들의 우주과학자들은 온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지구판축위성 『광명성-4호』호발사의 대성공을 이루어들이며 우리 국가의 권리와 위대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개를 높이 밝혔습니다.』

지구판축위성 『광명성-4호』호발사의 완전성은 천재적인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 백두산악파도 같은

무비의 탐방과 평활한 지략으로 우리의 실용성과 유통성이 촉각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청춘들은 전율하였다.

파란 조선은 무엇때문에 무슨 힘으로 걸단고 헌이은 위성발사팀 단행한것인가?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광포 울리는 암죽도 선언이 있다.

우주정복의 길은 단순한 학파의 길이기 전에 행명의 길, 자주, 자랑의 길이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펼칠기 위한 수령운위권, 당정책사수권이며 우리의 정회와 자주권을 빼앗으려는 세대세력들과의 치열한 계급斗争이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의 우주개발은 우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우주강국건설님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청탁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학파기술

『광명성-3호』호기의 성과를 이

록 할수 있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

업이다. 인공지구위성과 운반로켓을 연구제작하고 발사하는데는 실로

대박의 비용이 요구된다.

실행례로 거대한 운반로켓에 사용되는 연료만 고성보리도 고도의 기술제품이며 위성을 지상에서 통제하는 조종기술 역시 첨단기술이다.

첨단과학기술의 종합체라고 할수 있는 우주과학기술을 짧은 기간에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더우기 우리의 우주정복의 길은 남들처럼 순한한 길이 아니었다. 어떻 게 하나 우리의 우주강국건설을 저지시키려는 미제를 피수하고는 제

국주의연합체의 정치군사적압박과

역사는 그들의 사상정신적성장

의 차양분이었다.

삼지역사람들은 해마다 자기

손으로 기운 불멸의 끓 김정일회

와 친원들을 암고 백두산악

영교황체파 삼지역혁명사적관

을 찾는 그들을 누구나 아끼고

사랑한다.

새 새대들의 가슴마다에 도

백두의 냄새 마음의 기쁨으로

역세계 세워가는 정신세계가

파병에 그들은 물파보며 성장

하였다. 더우기 세 체험되어

있는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

역사는 그들의 사상정신적성장

의 깨끗한 지성을 바쳐온 이들의

뜻을 보고발았으고 코나쁜

운성을 베풀어주시었다.

여기에는 미청총, 미금총화

생들뿐이 아닌 우리 후대들이

매도의 냄새 신념의 기통으로

간직하고 앞날의 주인공으로

역세계 자리나き를 바라시는

그이의 크로나 기대와 믿음이

뜨겁게 달겨있다.

위대한 태양의 빛방아에 백두

의 혁명정신을 자랑으로 삼고

하였다. 더우기 세대의 일

세계, 미련세 차하고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진진이 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주개발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나가도록

세대신인 밝전이 이룩되고 실용성

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의 숭고한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밝은 미래를

나오시여 백두 강주위에서 운반로

케트의 수직회사도 직접 지도해주

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간에도 인공지구위성과

관련한 귀중한 교지를 주시였으며

어버이 이수령님께서는 1000명이 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학

방법을 날렸다.

그들은 꾸바혁명승리의

영광을 높여나가도록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밝은 미래를

나오시여 백두 강주위에서 운반로

케트의 수직회사도 직접 지도해주

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간에도 인공지구위성과

관련한 귀중한 교지를 주시였으며

어버이 이수령님께서는 1000명이 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학

방법을 날렸다.

그들은 꾸바혁명승리의

영광을 높여나가도록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밝은 미래를

나오시여 백두 강주위에서 운반로

케트의 수직회사도 직접 지도해주

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간에도 인공지구위성과

관련한 귀중한 교지를 주시였으며

어버이 이수령님께서는 1000명이 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학

방법을 날렸다.

그들은 꾸바혁명승리의

영광을 높여나가도록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밝은 미래를

나오시여 백두 강주위에서 운반로

케트의 수직회사도 직접 지도해주

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간에도 인공지구위성과

관련한 귀중한 교지를 주시였으며

어버이 이수령님께서는 1000명이 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학

방법을 날렸다.

그들은 꾸바혁명승리의

영광을 높여나가도록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밝은 미래를

나오시여 백두 강주위에서 운반로

케트의 수직회사도 직접 지도해주

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간에도 인공지구위성과

관련한 귀중한 교지를 주시였으며

어버이 이수령님께서는 1000명이 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학

방법을 날렸다.

그들은 꾸바혁명승리의

영광을 높여나가도록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밝은 미래를

나오시여 백두 강주위에서 운반로

케트의 수직회사도 직접 지도해주

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간에도 인공지구위성과

관련한 귀중한 교지를 주시였으며

어버이 이수령님께서는 1000명이 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학

방법을 날렸다.

그들은 꾸바혁명승리의

영광을 높여나가도록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밝은 미래를

나오시여 백두 강주위에서 운반로

케트의 수직회사도 직접 지도해주

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간에도 인공지구위성과

관련한 귀중한 교지를 주시였으며

어버이 이수령님께서는 1000명이 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학

방법을 날렸다.

그들은 꾸바혁명승리의

영광을 높여나가도록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밝은 미래를

나오시여 백두 강주위에서 운반로

케트의 수직회사도 직접 지도해주

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간에도 인공지구위성과

관련한 귀중한 교지를 주시였으며

어버이 이수령님께서는 1000명이 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학

방법을 날렸다.

그들은 꾸바혁명승

핵위협장본인들의 죄악은 가리울수 없다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등장한 것과 관련하여 남조선과 피의들이 『북핵위협』에 대해 더욱 요란하게 떠들어대면서 『북핵위협』이 선방되거나 그 어떤 문제도 풀릴 수 없다는 식의 너무 미칠을 해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도적이며 드는 적의 파렴치한 맹동이 아닐 수 없다.

피의들은 『북핵위협』이라는 것을 구실로 『싸드』 배치소동과 엄마인 암컷을 감행하여 하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와 현실은 우리에 대한 끊임없는 북핵위협으로 조선반도의 혼란체제를 산생시키고 그 해결을 가로막아온 장본인은 다른 아인 미국과 그에 속종하는 남조선과 피의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20세기 중엽 미국은 폐망한 일제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다. 이제 그 남조선을 강점한 조선을 지배하고 아시아에서 정당지역에서의 군사적권력을 광장하자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미국은 남조선을 북침을 위한 핵전기지로 만들고자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면서 조선반도에 당시적인 핵전쟁위험을 조성하였다.

1950년 초에는 남조선을 『사활적인 작전지역』으로 삼은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1957년 2월 남조선에 핵무기를 배포할 것을 피의들과 모의한 미국은 그해 6월에 있던 군사정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신형무기개발을 금지한 정전협정 제13항 핵무기 개발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그후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핵무장 학수』를 선언하였으나 1958년 1월 29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부대들에 핵무기 반입되었다는 것을 공식발표하였다. 그로부터

미미칠 후 남조선강점 미제 1군단 지휘부는 280mm원자로와 핵미사일 『오네스트론』을 실물공개함에 이어 5월에는 원자로발사시험을 진행하였다.

1993년 미국부상이 발간한 어느 한 도서에는 미국이 1958년 초에 『오네스트론』 미사일부대, 『펜트로미』 원자로단을 조선반도에 배치하였으며 1959년에는 남조선강점 미군부대에 핵탄두를 장착한 『마타돌』 미사일을 비비하고 대대적인 핵전쟁연습을 감행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기지회장체는 그 이후 더욱 구체화되고 끌임없이 보강되며 있으며 이에 따라 핵보관, 핵지뢰, 핵미사일 등 미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핵무기들이 남조선에 대량으로 쏟아들었다.

미국은 1960년대에 원자로단을 보다 현대적으로 개편하고 『나이크 히클리스』, 『호크』 유도탄을 비롯하여 당시 나토지역의 4배에 달하는 랑이었다.

미국은 1960년에 원자로단을 보다 현대적으로 개편하고 『나이크 히클리스』, 『호크』 유도탄을 비롯하여 당시 나토지역의 4배에 달하는 랑이었다.

미국은 1960년에 원자로단을 보다 현대적으로 개편하고 『나이크 히클리스』, 『호크』 유도탄을 비롯하여 당시 나토지역의 4배에 달하는 랑이었다.

미국은 1960년에 원자로단을 보다 현대적으로 개편하고 『나이크 히클리스』, 『호크』 유도탄을 비롯하여 당시 나토지역의 4배에 달하는 랑이었다.

미국은 1960년에 원자로단을 보다 현대적으로 개편하고 『나이크 히클리스』, 『호크』 유도탄을 비롯하여 당시 나토지역의 4배에 달하는 랑이었다.

미국은 1960년에 원자로단을 보다 현대적으로 개편하고 『나이크 히클리스』, 『호크』 유도탄을 비롯하여 당시 나토지역의 4배에 달하는 랑이었다.

미우려는 미국의 행동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감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기를 체계적으로 배포하는 한편 도처에 핵장고들을 신설하였고 핵탄두와 핵무기들을 같은 부대까지 풀어들여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민단의 준비를 갖추어놓았다.

춘천, 오산, 군산, 대전, 광주, 사천, 진해, 부산, 울산, 대구 등 남조선도처에 그 물체를 위험한 미제침략군의 핵기지들에 있는 방대한 양의 핵무기들이 저장되어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기지회장체는 그 이후 더욱 구체화되고 끌임없이 보강되며 있으며 이에 따라 핵보관, 핵지뢰, 핵미사일 등 미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핵무기들이 남조선에 대량으로 쏟아들었다.

미국은 1960년에 원자로단을 보다 현대적으로 개편하고 『나이크 히클리스』, 『호크』 유도탄을 비롯하여 당시 나토지역의 4배에 달하는 랑이었다.

미국은 1960년에 원자로단을 보다 현대적으로 개편하고 『나이크 히클리스』, 『호크』 유도탄을 비롯하여 당시 나토지역의 4배에 달하는 랑이었다.

미국은 1960년에 원자로단을 보다 현대적으로 개편하고 『나이크 히클리스』, 『호크』 유도탄을 비롯하여 당시 나토지역의 4배에 달하는 랑이었다.

미국은 1960년에 원자로단을 보다 현대적으로 개편하고 『나이크 히클리스』, 『호크』 유도탄을 비롯하여 당시 나토지역의 4배에 달하는 랑이었다.

미국은 1960년에 원자로단을 보다 현대적으로 개편하고 『나이크 히클리스』, 『호크』 유도탄을 비롯하여 당시 나토지역의 4배에 달하는 랑이었다.

최근 피의들은 미국과 앤하하여 복권전쟁연습을 끌임없이 벌피는 것도 모자라 남조선에 『싸드』를 끌어들이기로 하였으며 지어 『동북여전선』에 『4D작전계획』이니, 『대량응징보복전략』이니 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전방법에 회개까지 짜고 그 실행에 미쳐날뛰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환경에 끌어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인권범죄자들의 과정지한 낙두리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남조선과 미국이 함께 남조선에 『싸드』를 끌어들이기로 하였으며 지어 『동북여전선』에 『4D작전계획』이니, 『대량응징보복전략』이니 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전방법에 회개까지 짜고 그 실행에 미쳐날뛰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환경에 끌어놓았다.

그러나 안팎으로 궁지에 끌어놓았던 낙두리를 차리고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풍랑이 판을 벌리놓았다.

미제전선에 퍼미호전 광들은 미국방광권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우려 공화국을 무

